

[경제]

게재 일자 : 2019년 05월 13일(月)

“혁신이란 이름으로 리스크 간과 땀 금융시장 붕괴”



美 마이클 바 교수 조찬 강연
유연한 규제로 혁신해택 얻길

“금융혁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유연한 규제로 혁신의 리스크(위험)를 관리하면서 혁신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”

마이클 바(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·사진)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‘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’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쟁적인 금융혁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.
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도드-프랭크법(Dodd-Frank Rule)의 근간을 마련한 바 교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며 금융시장 개혁을 진두지휘했다.

바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, 핀테크 등 신기술을 근간으로 한 전 세계적인 금융혁신에 대해 “잘못된 이해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”고 우려했다. 그는 “혁신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변화지만 문제점도 동반한다”면서 “새롭게 등장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

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그는 잘못된 혁신에 대한 이해의 예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고빈도매매(HFT)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지적했다.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좋지만, 혁신이란 이름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리스크까지 간과하면 또다시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. 그는 “금융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”면서 “가장 중요한 일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회복력과 복원력을 갖추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바 교수는 이와 함께 △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상실증 △유동성과 레버리지 규제 △자산 거품 △글로벌 리스크 등을 금융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제시했다.

황혜진 기자 best@munhwa.com